

#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대비

이 득 춘(중국 연변대)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하는 언어이다. 이 두 언어의 어음을 음운론적으로 대비하여 보는 것은 자못 의의있는 일이다. 어음에서 보면 각자는 다 자기의 독자적인 음운체계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음방식과 조음장소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것들도 있으며 음운간의 대립관계, 음절의 형성 등에서도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다. 이와 반면에 서로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몇 개 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비함으로써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 1. 두 언어의 모음의 특징과 그 대비

(1) 한국어의 모음은 중국어에 비하여 음운과 음소 및 문자가 비교적 일치한다. 중국어는 14개의 모음을 6개 문자로 표시하고 있지만 한국어는 모든 홀모음이 다 문자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중국어]

a [A][a][e][a]

e [v][e][E][ə]

o [o][u]

i [i][h][i]

ü [y]

u [u]<sup>1)</sup>

[한국어]

[a] [ə] [o] [u] [i] [i] [e] [e] [ø] [y]

1) 이 외에 중국어에는 혀끝권설모음 er[ə 혹은 ər]이 있다.

(2) 한국어의 모음 음소는 혀바닥모음으로만 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혀바닥모음(舌面母音)과 혀끝모음(舌尖母音)으로 되어있다.

(혀끝모음)		(혀바닥모음)		
(앞)	(뒤)	(앞)	(가운데)	(뒤)
ɿ	ʅ	i y	i	u
*	*		#	
		e ø		ɤ o
ə		E #	a	*
*		* ε		
		a	A	ɑ

(도표에서 \*표는 중국어에만 있고 #표는 한국어에만 있는 것이다.)

보다시피 한국어와 중국어는 혀바닥모음에서 음성적으로 서로 없는 것도 있고 다같이 존재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혀끝앞소리(舌尖前音)와 혀끝뒤소리(舌尖後音)가 없을 뿐 아니라 권설모음도 없다.

(3) 음성기관의 균형 긴장 정도로 보면 한국어 모음은 중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대의 폐쇄정도, 성문의 좁힘 정도도 중국어에 비하여 좀 넓다. 이로부터 아래와 같은 점들이 도출된다.

한국어의 중·저 모음은 같은 조음 장소에 있는 중국어에 비하여 개구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예: e, a, ə, o, ε) 고모음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설, 고모음은 혀끝을 치경에 접근시키고 혀의 표면을 입천장에 접근시키는 높이가 중국어에 비하여 못하다.(예: i)

원순모음(고모음)은 입술 모양이 둥글어지는 정도도 중국어보다 못하다. 바꾸어 말해서 중국어의 원순모음은 입술이 한국어보다 앞으로 좀 더 나가며 원순 정도가 작고 동글다.(예: y, u)

(4) 한국어의 모음 음소는 중국어보다 적다. 한국어의 모음음소 중에서 오직 세 개만이 시활음(始滑音)이 되어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겹모음이 된다. 이라고 보면 모음의 결합에는 중국어와는 아주 다른 부동한 특징이 있다.

한국어의 모음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많아야 두 개 모음이 결합하여 겹모음으로 된다. 한국어의 겹모음은 이중모음만 있을 뿐 삼중모음은 없다. 하나의 평행적인 “l”를 제외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상승적이다. 한국어의 겹모음은 그 수효가 중국어보다 적다. 중국어는

이중모음, 삼중모음이 13개가 있으며, 이중모음은 상승적인 것 외에 하강적인 것도 있다. 비음운모(鼻音韻母) 중의 것까지 하면 이보다 더 많다.

(5)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그 결합정도가 중국어보다 더 긴밀하다. 따라서 활동(滑動)동작이 중국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하나의 음소로부터 다른 하나의 음소로의 이동이 과도할 때 혀나 구강의 변화는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도약적이다. 아울러 중간 과도음이 명확치 않다.

예: [중국어] ie[iɛ] : [i-e-E-ɛ]

ai[ai] : [a-æ-ɛ-i]

[한국어] ㅣ[iɛ] : [i-ɛ]

(6) 한국어의 모음은 모두 단독적으로 음절을 이룬다.(겹모음 포함) 이러한 음절은(자음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단어로 되거나 또는 단어 중의 음절로 된다. 중국어는 이와 다르다. 중국어의 일부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여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모음은 자음에 대한 의뢰성이 강하다.

예를 들면 i[i][ɿ]는 자음이 없으면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i[i], ü[y]를 예로 들면 i(i가 포함된 겹모음도)는 [p], [p'], [m], [t], [t'], [n], [l], [tɕ], [tɕ'], [tɕ]와만 결합될 수 있을 뿐 [f], [ts], [ts'], [s], [k], [k'], [x], [tʂ], [tʂ'], [ʂ], [z]와는 결합할 수 없다. ü는 [tɕ], [tɕ'], [ɕ], [n], [l]와만 결합할 수 있을 뿐 다른 자음과는 결합할 수 없다.

(7) 상대적으로 보아 한국어의 모음은 자음과의 결합에서 비교적 자유, 영활하다. 예를 들면 홀모음은 모든 자음과 결합되어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음절은 극소수의 경우 외 모두 단어 또는 단어 중의 음절로 된다. 이는 한국어 모음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8) 한국어의 모음을 중국어의 모음과 대체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별이 있지만 청각적인 것을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 1) 기본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 : [i], [y], [u], [a], [e], [ə], [ɛ]
- 2) 차이가 있지만 대응시킬 수 있는 것 : ㅜ와 o, ㅡ와 i[ɿ], ㅓ와 [ʌ]
- 3)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것: ㅝ, i[ɿ]

## 2. 두 언어의 자음의 특점과 그 대비

(1) 한국어의 자음은 19개이고 중국어의 자음은 22개이다.

b[p]    p[p']    m[m]    f[f]  
d[t]    t[t']    n[n]    l[l]

g[k] k[k'] ng[n] h[x]  
 j[t] q[t'] x[c]  
 z[ts] c[t'] s[s]  
 zh[tʃ] ch[tʃ'] sh[ʃ] r[z]

(2) 한국어의 자음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없다. 이는 중국어와 기본적으로 같다. 한국어의 파열음, 파찰음은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자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마찰음은 순한소리와 된소리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소음성 자음은 순한, 거센, 된 3열 체계가 있다. 된소리 체계의 존재는 한국어 자음 음소 대립 체계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중국어는 다만 유기와 무기의 대립이 있을 뿐 순한 소리와 된소리는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한국어 자음	순한, 된	무기, 유기
k	/k:/ /k' /	/k:/ /k' /
t	/t:/ /t' /	/t:/ /t' /
p	/p:/ /p' /	/p:/ /p' /
s	/s:/ /s' /	
ts	/ts:/ /ts' /	/ts:/ /ts' /

(3) 한국어의 자음은 발음시에 된소리 외의 것들은 구강내에서 기류를 저애하는 부분의 긴장정도가 중국어보다 못하다. 무기무성폐쇄음은 중국어에 비해 저애부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기류가 약하다. 마찰음, 파찰음은 중국어에서처럼 혀끝이 그리 긴장, 민감하지 않으며 아울러 주동 조음 기관과 피동 조음기관, 장애 형성과 장애 소실이 비교적 완만하다.

(4) 한국어의 자음은 음운과 음운 변종간에 내파와 외파의 대립을 이룬다.

/k/, /k' /, /k' /, .....[-k]  
 /t/, /t' /, /h/, /s/, /s' /, /ts/, /ts' /.....[-t]  
 /p/, /p' /, .....[-p]  
 /n/.....[-n]  
 /r/.....[-l]  
 /m/.....[-m]

그러나 중국어는 /n/만이 이러한 대립을 이룬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무성받침이 있는 것은 일대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와 아울러 내파된 무성 음소는 내파된 유성 음소와 축음과 비음의 대립을 이룬다.

[-k] -----> [-ŋ]  
 [-t] -----> [-n]  
 [-p] -----> [-m]

(5) 한국어의 마찰음은 다만 [s]와 [h] 그리고 [s]의 된소리 [s']가 있을 뿐이다. 중국어에는 6개의 마찰음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음 장소에 다 있다.

/f/, /x/, /ɸ/, /s/, /z/, /ʃ/

아울러 중국어에서는 무기폐찰음, 유기폐찰음, 마찰음의 3자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tɕ/ : /tɕ`/ : /ɕ/  
 /ts/ : /ts`/ : /s/  
 /tʂ/ : /tʂ`/ : /ʂ/

(6) 한국어의 자음 음소는 모음 음소와의 결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 령활하게 음절머리거나 음절끝에 나타날 수 있다. 중국어의 자음 음소는 모음 음소의 제약을 받아 다만 일정한 모음과만 결합되며 이에 따라 음절머리와 음절끝에 나타나는 것도 한국어에 비하여 영활하지 못하다.

한국어의 자음 음소는 /ŋ/외에 전부 음절머리에 출현되며 /t/, /l/, /k/, /ŋ /, /m/, /p/, /n/ 등은 음절끝에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어는 /ŋ/, /n/만이 음절 끝에 올 수 있으며 음절머리에

도 일정한 모음에 따라서만 올 수 있다.  
이런으로써 한국어는 음절이 풍부하다.

[중국어 음절자]: 400

[한국어 음절 총수]: 2088<sup>2)</sup>

(7) 한국어에서는 비강자음이 음절끝에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계렬에 속하는 구강자음도 음절끝에 올 수 있다. 구강자음이 음절끝에 오는 것은 한국어 음절구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보면 한국어 음절에는 폐음절이 다수이다.

[한국어]

촉음절: 675

비음절(鼻音節): 1083

개음절: 330

[중국어]

비음절: 172

개음절: 229<sup>3)</sup>

여기서 보면 중국어는 한국어와 상반대이다.

(8) 한국어에서 구강음과 설측음이 음절끝에 음으로 해서 중국어와는 다른 어음 변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음절 사이에서 된소리화, 거센소리화, 비음화, 설측음화가 일어난다. 예:

(9) 한국어에는 순치음과 권설음이 없다. 비단 음운 가운데 없거니와 그 변종이거나 변이적 형태에도 없다. 자음체계에 없거니와 어류속의 어음변화에도 이런 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徐世榮은 「普通華語音知識」(1980, 文字改革出版社)에서 중국어 상용음절을 400개로 하고 있다. 「新華字典」(1971, 수정본)에서는 415개로 하고 있다. 중국어에서 성조가 비음색음운이므로 실제상 음절은 더 많아진다. 「現代漢語詞典」에서 418개 음절을 내놓고 있는데 성조를 포함하면 1,327개로 된다. 한국어의 음절 수는 「現代朝鮮語音節探析」(1987, 「朝鮮語言學論文集」)에 의했다.

3) 앞 쪽의 각주와 동일하다.

뒤음절머리 앞음절끝	t	h	m	r
k	kt'	kk'	ɱm	
t	tt'	tt'	nm	
p	pt'	pp'	mm	
l	lt'			ll

(10) 한국어에는 고저장단 등 비분절 자질요소가 있으며 또 일부 개별 단어들에서 그것이 변별적 자질로 되지만 비음색 음운체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는 성조 언어인 중국어와 판연 다르다.

### 3. 음절구조의 대비

#### 1) 한중 음절 구조 대비

음절구조	한국어	중국어
모음	아[a]	a[a]
자음+모음	나[na]	na[na]
모음+비음	안[an] 양[aŋ] 암[am]	an[an] ang[aŋ]
모음+폐쇄음	악[ak] 앞[ap] 앗[at]	
모음+설측음	알[al]	
자음+모음+설측음	갈[kal]	
자음+모음+비음	간[kan] 강[kaŋ] 감[kam]	gan[kan] gang[kaŋ]
자음+모음+폐쇄음	각[kak] 갑[kap] 갓[kat]	
모음(er)		er[ər](二)
자음+모음(er)		huar[xuar](花)

(2) 자음과 모음 [i]의 결합표

이 도표는 위에서 지적한 자음과 모음의 특성에 대한 보충적 부분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자모음의 결합을 보여 줄 수 없으므로 다만 자음과 모음 [i]와의 결합만 보여준다.

두 언어의 자모음을 국제음성문자로 표시하고 어느 한 언어에만 있는 것은 [ ]표로 묶어 표시한다. 중국어의 음절은 병음(拼音)으로 표시한다.

자음	모음 음절	한국어 "ㅣ" 음 절	중국어 "i" 음절(뜻)
p		비	bi(比)
p'		피	pi(批)
[p']		ㅍ(라)	
m		미	mi(米)
[f]			
t		디(디다)	di(地)
t'		티	ti(體)
[t']		띠	
n		니(탄)	ni(泥)
[r]		리	
[l]			li(里)
k		기	
k'		키	
[k']		끼	
[h]		히	
[x]			
s		시	
[s']		씨	
ts		지(지)	
ts'		치	
[ts']		찌	
[tɕ]			ji(基)
[tɕ']			qi(其)
[c]			xi(戲)
[tɕʂ]			
[tɕʂ']			
[ʂ]			
[z]			
0		이	yi(衣)